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150-2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코로나19 시대 국내 여행의
변화와 향후 전망

2021. 10. 13.

담당자 김지혜 과장
전화 | 02-3014-1039
e-mail | kim.jh@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코로나19 시대의 국내 여행의 변화와 향후 전망



주요 결과

-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확진자의 증가, 감소가 반복되며 2년째 장기화되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여행 경험률은 꾸준히 20%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2019년 23.2%, 2018년 22.4%, 2017년 20.8%) 코로나19 이후 해외 여행길은 막혀버렸다. 최근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일부 국가에서 자가격리 기간을 면제하며 해외 여행객을 허용하고 있으나 여러 번의 추가 검사와 비용은 오롯이 여행객 본인의 몫이다.
- 해외 여행이 어려운 현시점에 사람들은 국내 여행으로 여행의 갈증을 해소하고 있을까? 코로나19 전과 비교했을 때, 국내 여행 유형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지난 9월 10일 ~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 2021년 한해 국내 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0%, 여행 횟수는 2.4회에 그쳤다. 또한 응답자의 80%가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했을 때 국내 여행 횟수를 줄였다고 답했고, 올 한 해 국내 여행을 다녀온 사람 중에서도 64%는 코로나19 유행 전과 비교했을 때 여행지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다녀온 응답자들은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안전(52%)하다고 생각했고, 코로나19 이전보다 위생·안전(63%), 해당지역 방문하는 사람 수(54%)를 더 많이 고려했다
- 국내 여행 방문 지역은 강원(28%), 경기(20%), 경남(17%) 순으로 높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 강원(20%), 제주(12%) 순이었다.
- 10명 중 8명은 확진자 수가 2,000명 이하(84%)이고, 백신 접종률 50% 이하(81%) 유지 시 국내 여행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 다만 코로나19가 나아진 이후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응답자의 76%가 코로나19 이전보다 국내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회복 후의 상황을 가정하여 조사한 주요 여행의 유형들 모두 ‘증가할 것이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어떤 형태의 여행이든지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코로나19로 억눌린 여행 심리가 ‘보복 여행’으로 폭발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1 코로나19 이후 국내 여행 경험

해외 여행길이 막혔을 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 역시 코로나19로 많이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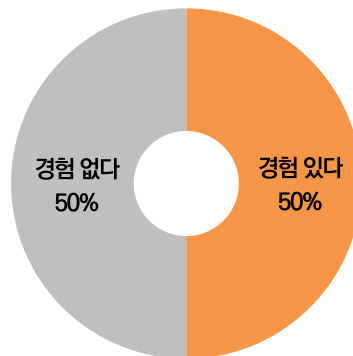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만 15세 이상 전국민의 국내 여행 경험률은 92.4%, 여행 횟수는 7.6회로 대다수가 1년에 한 번쯤은 국내 여행을 다녀왔다. 그러나 2020년 국내 여행 경험률은 86.4%, 여행 횟수는 5.0회로 줄어들었다(2019, 2020 국민여행조사 기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2021년의 여행 경험 역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사방법과 조사대상, 여행에 대한 기준 등이 달라 국민여행조사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2021년 한해 국내 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0%, 여행 횟수는 2.4회에 그쳤다.

또한 응답자의 80%가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했을 때 국내 여행 횟수를 줄였다고 답했고, 올 한 해 국내 여행을 다녀온 사람 중에서도 64%는 코로나19 유행 전과 비교했을 때 여행지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여행 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 역시 많이 위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단위 : %)

2021년 국내 여행 다녀온 사람 50%



질문 : 귀하께서는 올해(2021년) 국내로 여행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비고 : '공간적으로 일상 생활권을 벗어나 다른 지역을 방문한 경우', '관광, 휴양/휴식, 레저, 식도락, 체험, 친지·친구 방문을 위한 이동으로 방문지에서 최소 반나절 이상 머문 경우' 를 여행으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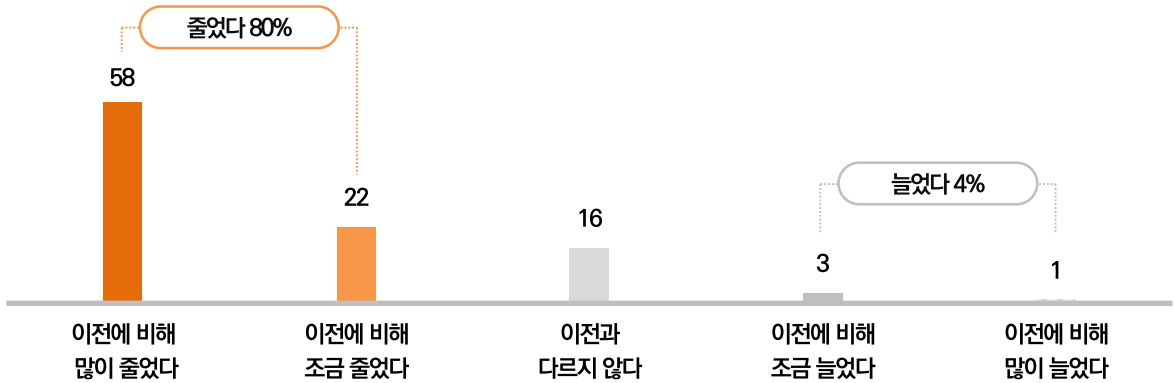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1.9. 10. ~ 9. 13.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on.co.kr)

(단위 : %)

코로나19 이후 국내 여행 횟수 줄어들었다 80%



질문 :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과 비교했을 때 본인의 국내여행 횟수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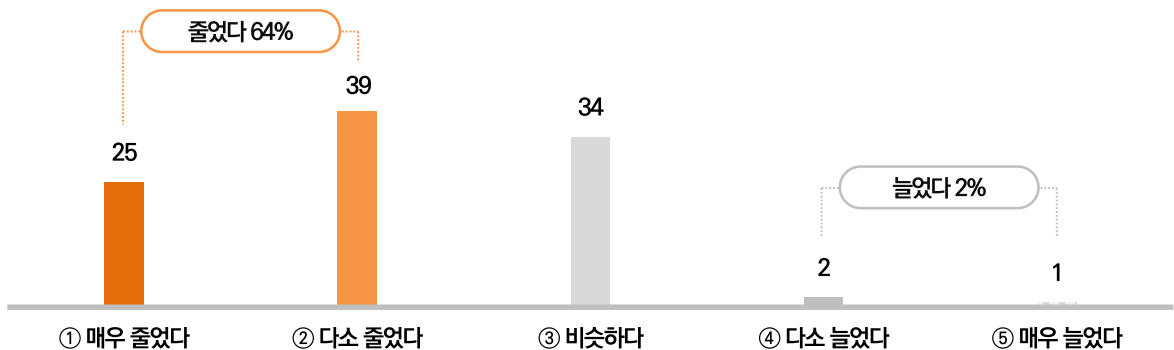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1. 9. 10. ~ 9. 13.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단위 : %)

코로나19 전과 비교했을 때 여행지에서 머무는 시간 줄었다 64%



질문 :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과 비교했을 때 본인의 국내여행 횟수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응답자 수 : 2021년 국내 여행 경험 있다고 답한 사람 503명

조사기간 : 2021. 9. 10. ~ 9. 13.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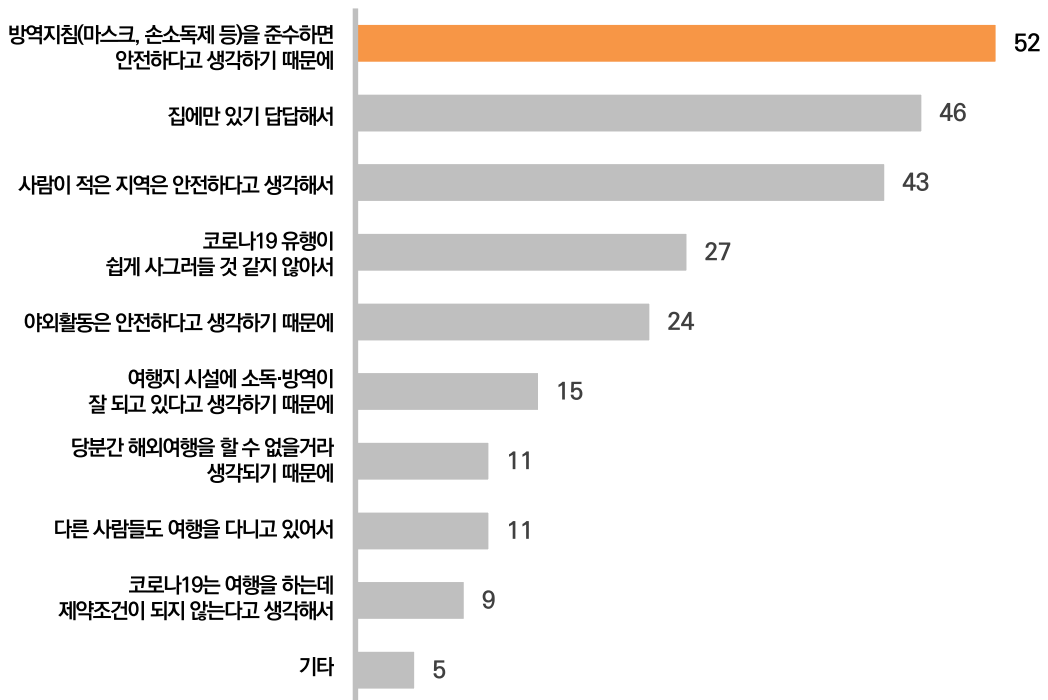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여행지 결정요인

코로나19 시대 여행지 결정요인, 위생·안전과 혼잡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왜 여행을 다녀왔을까?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에만 있기에 답답해서 여행을 했다는 응답도 46%를 차지했지만, 마스크 착용이나 손소독제 사용 같은 개인방역수칙을 준수(52%)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나, 사람이 적은 지역 방문(43%)은 안전하다고 생각해 국내 여행을 다녀왔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단위 : %)

코로나19 유행에도 여행하는 이유, 방역수칙 준수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52%



질문 :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도, 국내여행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고: 복수응답

응답자 수: 2021년 국내 여행 경험 있다고 답한 사람 50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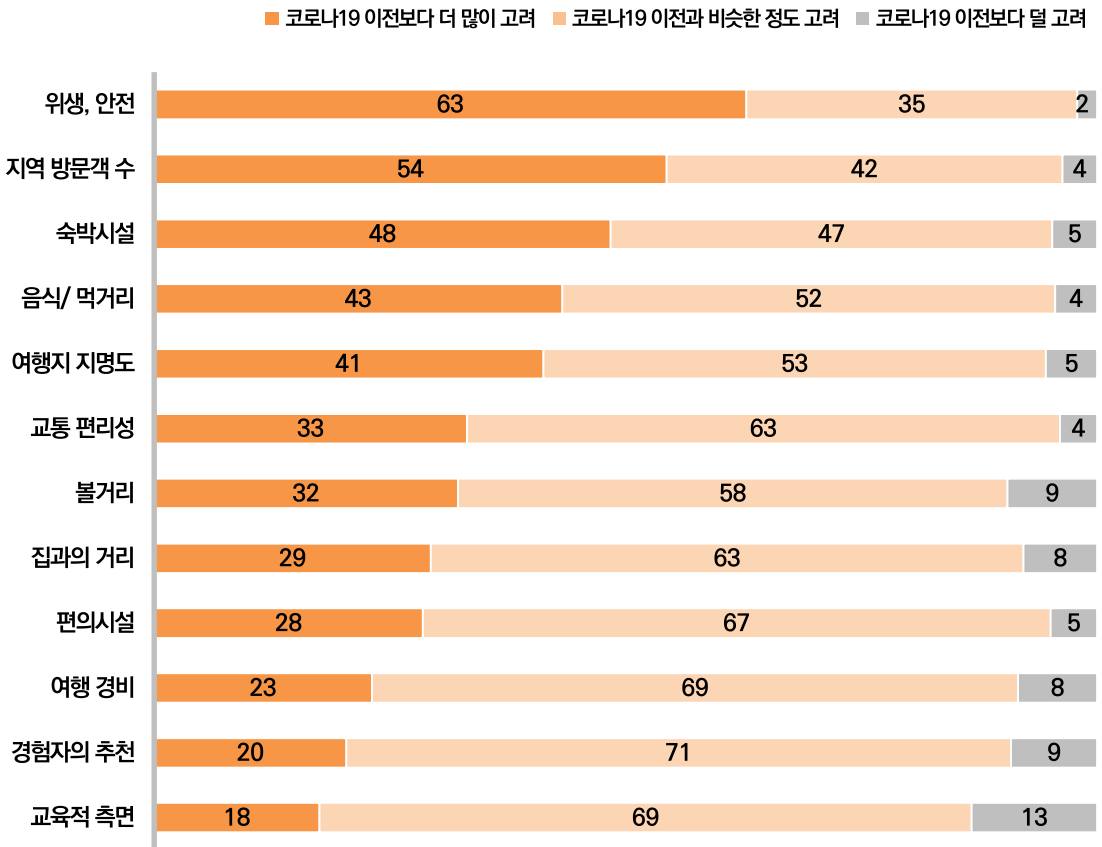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1. 9. 10. ~ 9. 13.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여행지를 결정할 때, 위생·안전(63%), 해당지역 방문하는 사람 수(54%)를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많이 고려했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는 반면, 전통적인 결정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경험자의 추천(20%), 여행경비(23%), 볼거리(32%)를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많이 고려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여행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사람과의 접촉을 신경 쓰며 여행지를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

위생·안전(63%), 지역 방문객 수(54%),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많이 고려



질문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국내여행지를 결정할 때 다음 각각을 얼마나 더, 혹은 덜 고려하였습니까?

응답자 수 : 올해 국내 여행 경험이 있는 503명

조사기간 : 2021. 9. 10. ~ 9. 13.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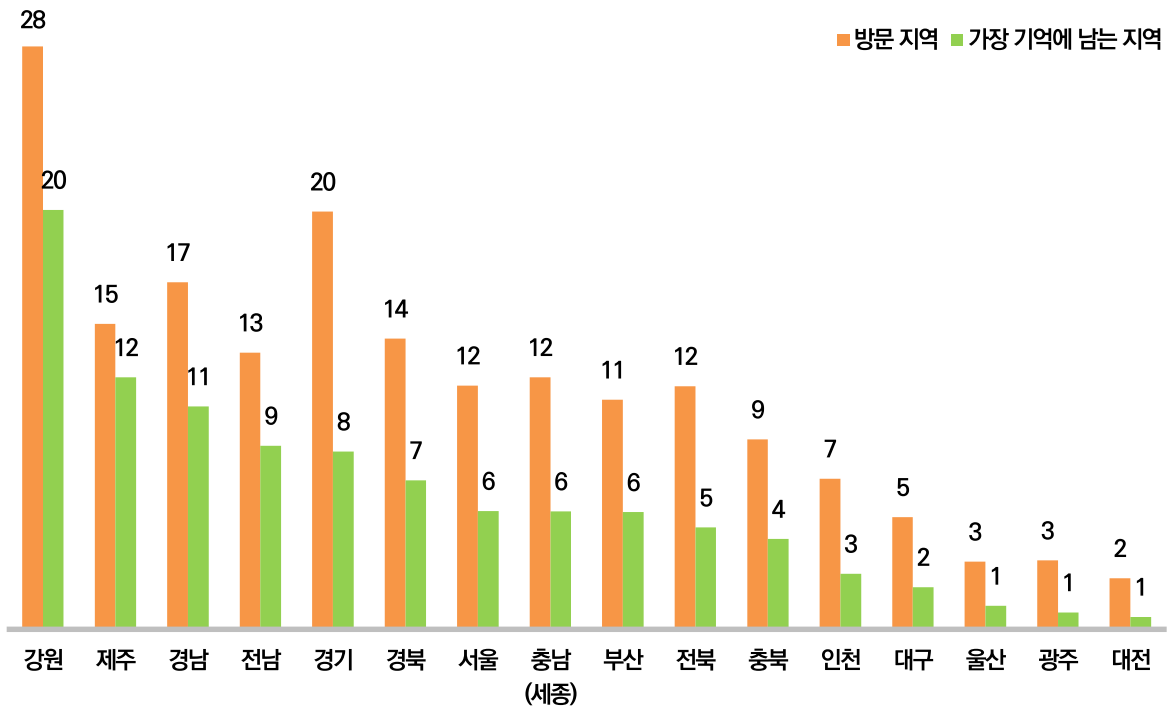
가장 인상깊은 국내 여행지

올해 다녀온 국내 여행 중 가장 인상깊었던 곳, 강원도와 제주도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 가능해지면 재방문 의향 있다 79%

올해 국내 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방문 지역은 강원(28%), 경기(20%), 경남(17%) 순이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로는 강원(20%), 제주(12%), 경남(11%) 등을 꼽았다. 특히 제주도 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는 82%가 제주도를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로, 강원도 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는 72%가 강원도를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로 꼽아 다른 지역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단위 : %)

국내여행 방문 지역 강원(28%), 경기(20%), 경남(17%) 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 강원(20%), 제주(12%)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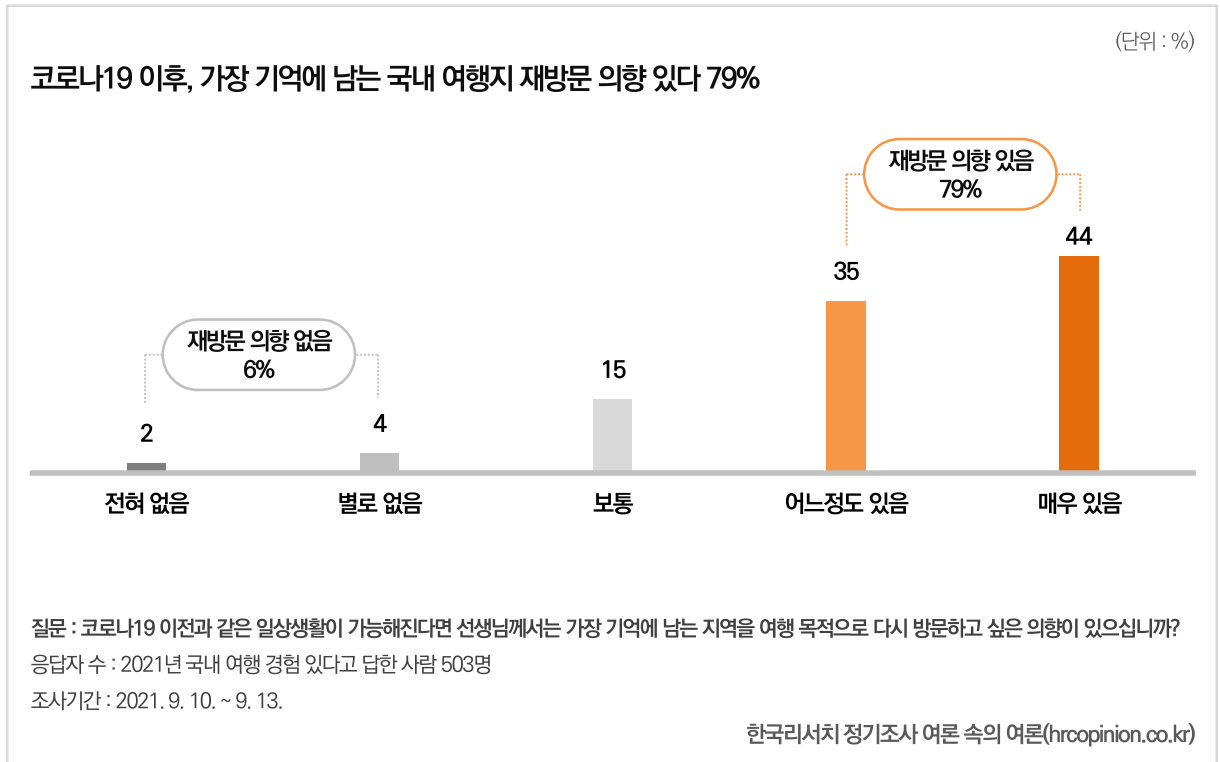
질문 : 귀하께서는 올해 어디로 국내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오신 지역이 여러 곳일 경우 최근 다녀온 지역을 기준으로 5개까지 골라 주십시오.
귀하께서는 올해 다녀오신 국내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어느 지역이셨나요?

응답자 수 : 올해 국내 여행 경험이 있는 503명

조사기간 : 2021. 9. 10. ~ 9. 13.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면,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를 재방문 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79%로 높았다. 제한된 환경이었지만, 올 한 해 방문했던 여행지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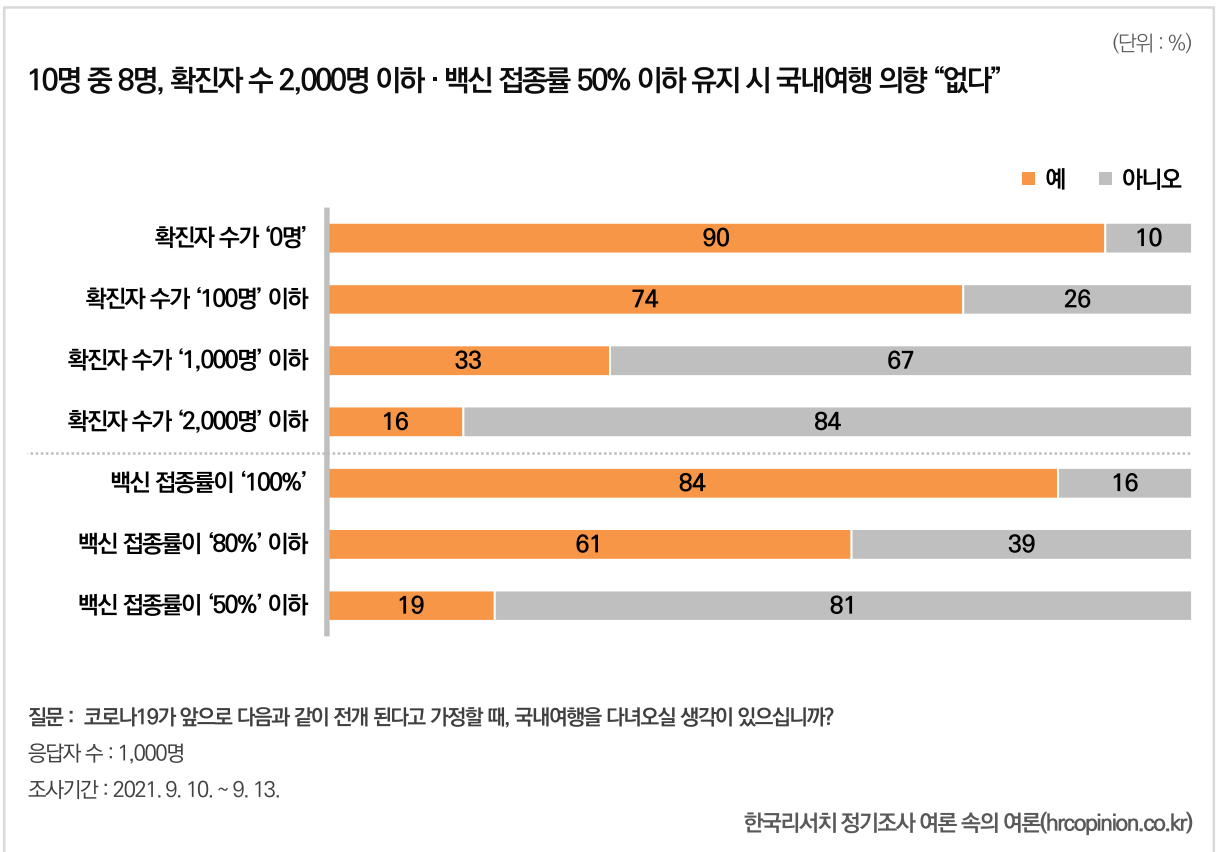


4

확진자 수와 백신 접종률에 따른 국내 여행 의향

아직은 조심스런 국내 여행, 그러나 상황이 나아진다면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할 것이다 76%

국내 여행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안심하고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을까?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확진자 수 100명 이하로 유지될 경우 전체 응답자의 74%가, 백신 접종률이 80% 수준이 되면 전체 응답자의 61%가 국내 여행을 다녀올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유지될 경우에는 33%만이, 백신 접종률이 50% 수준이면 19%만이 국내 여행을 다녀올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 추세와 10월 말 이후로 예상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을 감안할 때 확진자 수가 두자리 수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백신 접종률 80% 역시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최대 수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이상 국내 여행 역시 계속해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가 나아진 이후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응답자의 76%가 코로나19 이전보다 국내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이전보다 해외 여행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66%)보다 높은 것이다. 불확실성이 높고 언제 코로나19에서 벗어날지 모르는 해외보다는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국내를 여행하려는 수요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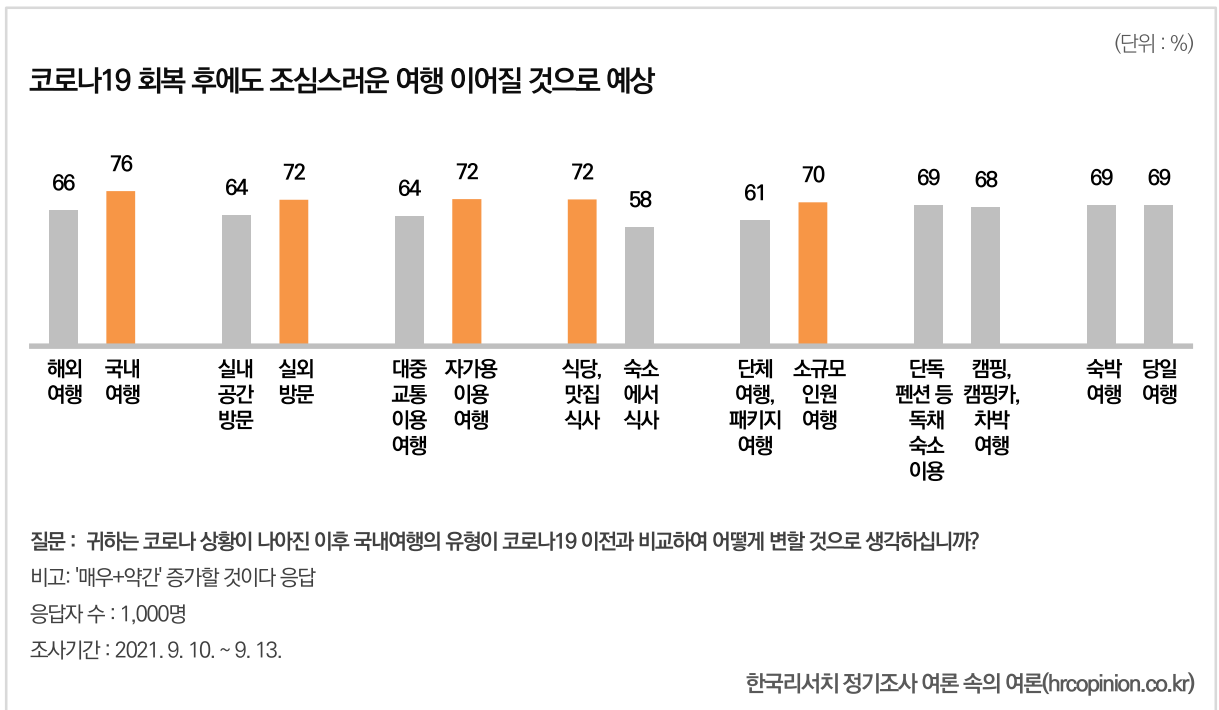
5

코로나19 이후 여행 심리의 변화

코로나19 이후에도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을 최대한 낮추는 여행 늘어날 듯 코로나19 이후 ‘여행 심리의 폭발’ 예상

코로나19 상황이 회복된다면, 여행 유형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다양한 여행의 형태를 제시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어떻게 변할지를 물어보았는데, 소규모 인원 여행(70%)이 단체·패키지여행(61%)보다, 실외공간 방문(72%)이 실내공간 방문(64%)보다, 자가용 여행(72%)이 대중교통 여행(64%)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다소 높았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을 최대한 낮추는 여행 유형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여행지 맛집에서의 식사(72%)가 직접 조리·포장 등 숙소 내에서의 식사(58%)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은 것은 흥미롭다. 맛있는 음식은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고, 대체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코로나19 회복 후의 상황을 가정하여 조사한 14개 항목 모두 ‘증가할 것이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어떤 형태의 여행이든지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코로나19로 억눌린 여행 심리가 ‘보복 여행’으로 폭발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나드는 요즘, ‘여행’이란 단어조차 조심스럽다. 그러나 장기화된 코로나19와 강도 높게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치고 답답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는 더 이상 여행에 소극적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개인위생수칙과 방역수칙 준수 등 기본적인 준비에 더해, 여행·관광·요식업계 종사자, 방역당국 등이 모두 힘을 모아 안전하게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다.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1년 8월 기준 약 63만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1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9,254명, 조사참여 1,500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0.8%, 참여대비 66.7%)
조사일시	• 2021년 9월 10일 ~ 9월 13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論論

Hankook | Research

